

이즈모노쿠니의 신화

이 영화에서는 8 세기에 조정을 위해 지역의 지리와 풍습, 설화 등을 기록하여 편찬한 『이즈모노쿠니 후도키』 중에서 몇 가지 신화를 소개합니다.

이야기는 ‘구니비키’ 신화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야쓰카미즈오미즈누라는 이름의 신은 이즈모의 땅이 지나치게 좁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다 너머를 둘러보고 넉넉한 크기의 토지를 발견한 신은 거대한 가래를 사용해 땅을 여러 개의 덩어리로 잘라냅니다. 이 덩어리들을 두꺼운 줄로 이즈모의 해안으로 끌어와 말뚝에 연결합니다. 말뚝은 훗날 산베 산(이즈모의 남서쪽 지방)과 다이센 산(돗토리현)이 되었으며, 끌려온 땅이 지금의 시마네 반도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신화는 사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다의 어머니인 기사카이히메는 출산을 앞두고 진통이 시작되자 해안 동굴로 은둔하게 되는데, 이때 금으로 만든 활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활이 돌아오기를 기원한 후, 기사카이히메는 활이 파도에 밀려 자신이 있는 곳을 향해 떠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활을 되찾은 기사카이히메는 동굴 벽에 화살을 쏘아 바다로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통로를 지나가는 여행자들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돌풍으로 배가 전복된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이 영상에서는 ‘다마히메와 상어’에 관한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바닷가에서 다마히메를 보게 된 상어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상어는 사랑을 고백하고자 강을 헤엄쳐 내륙으로 향합니다. 상어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다마히메는 바위로 강을 막아 버립니다. 이러한 일화의 배경이 된 이즈모 동남쪽의 바위로 가득한 계곡은 ‘사랑을 갈구한 상어(와니노시타후)’라는 뜻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발음이 변화하면서 지금의 ‘오니노시타부루이’가 되었습니다.